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황주홍 강진군수

“농·수산업 벤처 기업화 추진”

“가난이라는 질곡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강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이 황금돼지해인 올해 변화와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가난해방’은 군정 책임을 맡은 황주홍 군수의 신념이자 철학이다.
황군수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변화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같은 믿음은 ‘가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으며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올 신년사에서 잘 드러나 있다.



청자의 고장, 강진의 위상을 세우는 중대 계기가 될 전망이다.
조선시대 육군 총 사령부였던 전라병영성 복원, 네덜란드촌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지역개발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회생과 스포츠 마케팅 분야도 황 군수의 역점사업이다.
성전면 월남리 전원마을과 강진 호수공원은 전국 최고의 관광 모델 사업으로 조성된다.
도민체육대회와 춘계 중학교 축구연맹전, 청소년 국제친선 축구대회 등 10여개의 매머드급 대회를 유치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

식품업체 적극 유치

황군수는 “주민들이 외지인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하며 잘살겠다는 기업이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민과 공무원 스스로가 변화하는 토대 위에서 올해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과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수지가 맞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벤처 기업화 하겠다는 것이 황군수의 복안이다.
현재 40명대인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를 2010년까지 100명선으로 늘리고, 명품쌀을 비롯한 친환경 농업 면적을 2천ha로 확대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판매망 확충 등 판로를 확대하고 식품 산업 관련 기업체 유치에도 적극 나설

침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조기에 완공, 첨단정보와 기술보급, 체계적인 교육 등 강진을 농업 관련 집적 타운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도답사 1번지로 잘 알려진 천혜의 자연과 관광자원을 십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도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이다.
다산 정약용 전시관 신축과 다산초당, 사외재 복원 등을 추진하고 문화과 공예, 다산·영랑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소규모 축제도 계절에 따라 상시 개최할 생각이 다.
대구면 청자촌 일대에 도예마을을 조성하는 청자 프로젝트는

스포츠 마케팅 주력

다는 구상도 눈길을 끈다.
군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는 복지정책 확대, 쾌적한 환경조성도 황군수의 주요 시책중 하나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종합회관 운영과 홀로사는 노인 유치를 위한 순회배달방 운영, 오지 지역민을 위한 보건진료소 신축 등도 계획하고 있다.
황 군수는 “올해를 강진발전의 역사적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며 “군민과 공무원들도 더 단결하고, 더 친절하고, 더 기업이 정신으로 무장해서 큰 성과를 이루는 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광산구 ‘직소민원실’ 행정 신뢰 높인다

작년 이후 402건 처리

광산구(청장 전갑길)가 설치한 직소민원실이 주민 권익보호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광산구 청 직소민원실이 처리한 민원은 402건으로 이중 43%인 174건은 관련부서를 통해 해결했고, 6%에 달하는 21건은 광주시나 토지개발공사 등 타

기관에 의뢰해 해결했다.
51%에 달하는 207건은 교통단속, 도로·노점상 단속 등에 대한 항의 민원으로 직소민원실이 직접 면접이나 전화를 통해 조정했다.
주민이 제기한 민원유형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불만 등 교통분야가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분야 57건, 건축 46건, 청소 31건, 환경분야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한방 건강증진보건소’

나주시 보건소 3년연속 선정

나주시 보건소(소장 유지승)가 전국 24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3년연속 ‘한방 건강증진(HUB)보건소’로 선정됐다.
‘한방 건강증진보건사업’은 ▲한방 금연교실 ▲중풍 예방교실 ▲기공 체조교실 등 한방보건 8대 기본사업 외에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양·한방 통합 방문보건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첫 민관합작사 장흥정남진유통공사

부실경영 싸고 법정공방

장흥군, 횡령 협의 등 사장·회계법인 고발

전국 최초의 민관합작 회사인 장흥정남진유통공사 최고 책임자와 회계법인이 횡령과 부실회계 혐의로 형사 고발돼 공기업 부실경영 공방이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
김인규 장흥군수는 지난 9일 전 정남진유통공사 사장 임모(47)씨와 회계감사를 맡았던 S회계법인을 횡령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군 관계자는 “전 유통공사 사장 임씨가 운영관리 부실, S회계법인은 부실한 회계감사로 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흥군은 임씨가 군과의 당초 연봉계약을 무시한채 임의로 판로시장 개척에 따른 수당 등 수천만원을

금에 잠식돼 민간인 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받는 등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03년 공모방식으로 전문 경영인(CEO)출산인 임모(47)씨를 사장으로 영입, 정남진유통공사로 재출발 했으며 시설투자와 도시권 관로 시장(백화점) 개척과 음료 및 장류 개발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펴 왔다.
하지만 정남진 유통공사는 현재 부동산 9억원, 재고자산 8억원, 상품권 개발 등 무형자산 1억2천만원, 기타 채권 등 3억4천만원 총 21억4천5백만원의 자산(부채 5억1천만원 포함)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전국 백화점 등 30개 유통망을 확보하고 표고버섯에 대한 중군배양 및 기자재 판매사업과 가공품, 표고음료, 표고된장·고추장과 매생이 등을 유통·판매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눈길 끄는 왕인 수석전시관

구립 27일 영암군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내에 문을 연 왕인 수석전시관에 관람객들이 몰리고 있다.
한옥 구조로 꾸며진 왕인 수석전시관은 600여 점의 수석을 소장하고 있으며 영암에서 생산된 차를 마실 수 있는 전통차집과 정지도 갖추고 있다.
/워지기자 jrjw@

법성단오제 등 8개 축제

전남도 대표축제 선정

영광 법성단오제와 화순 고인돌축제 등 8개 축제가 ‘2007년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대표축제 1위에는 영광 법성단오제가, 2위에는 순천 순천만 갈대축제와 곡성 심청축제 등 2개, 장려부문을 목포 해양문화축제, 영암 왕인문화축제, 장성 홍길동축제, 광양 매화문화축제, 화순 고인돌축제 등 5개 축제가 각각 선정됐다.
전남도는 이번 대표축제에서 제외된 구례 산수유축제, 고흥 우주항공축제 등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망축제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2007 전남 대표 축제

Table with 3 columns: 지역 (Region), 명칭 (Name), 선정 내용 (Selection Content). Rows include 영광 법성 단오제 (1st), 순천 순천만 갈대축제 (2nd), 곡성 심청축제, 광양 매화문화축제, 목포 해양 축제, 영암 왕인문화 축제, 장성 홍길동 축제, 화순 고인돌 축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촉구

여수시의회, 결의문 발송 논란

투자유치 찬물 우려

여수시의회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발송,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주 전남 시·군 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의장들이 서명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반대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문’을 지난 12일 청와대와 국회, 재정경제부, 전남도 등에 발송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문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여수시장의 고유 사무 36개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관돼 역내 율촌면, 화양면 일부지역이 여수시 관내임에도 권한 행사를 못하고 오히려 각종 민원 해결 부담

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율촌산단과 신대지구에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의문 채택이 투자 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함께 광양만권을 동북아 해운물류기지로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10월 지정됐고 면적은 광양, 여수, 순천, 하동 일대 5개 지구 2천733만평에 달하며 여수시에 포함된 면적은 약 1천만평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진도공설운동장 17일 준공

진도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진도공설운동장이 17일 준공된다.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일대 5만7천여평에 건설된 공설운동장은 인조잔

디가 깔린 주경기장과 육상트랙, 1만석 규모의 관람석, 분부석 등을 갖추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Advertisement for 'Korea Food Industry (주)' (국제외식산업(주)). Features a large image of a field with people, and text promoting '아외 결혼식 가능' (Foreign wedding possible) and '관광버스음식 대접' (Tourist bus catering). Contact info: (062)262-2278.

Advertisement for 'Cell Banking'. Features a large red heart with the text 'Cell Banking'. Text below says '셀뱅크는.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하였다가' (Cell banking is. when healthy, store your own cells). Includes contact info: 377-3475.